

제 1 교시

국어 영역(A형)

[1~3]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난 현장 체험 학습 때 정약용의 생가에서 본 배다리 모형이 기억나시나요? 생가에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있던 것이 바로 배다리 모형이었습니다. 저희 모듬은 조선 정조 때 설계된 배다리에 실용성을 추구하는 선조들의 생각이 잘 담겨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배다리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여기 앞의 화면을 보시죠. 아치형 모양의 이것이 바로 조선 정조 때 정약용이 설계한 배다리입니다. 이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배다리는 강에 배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그 위에 널빤지를 깔아서 임시로 다리처럼 건널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당시에는 폭이 넓은 강에 다리를 설치하는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사람들이 폭이 넓은 강을 건널 때에는 배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행차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한번에 이동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임시로 배다리를 놓아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에 참배하러 갔을 때도 이 배다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배다리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화면에서 강의 가운데를 손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강의 한가운데와 같이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센 곳에는 큰 배들을 놓고, (화면에서 강의 양 끝을 손으로 가리키며) 물에 가까운 양쪽에는 작은 배들을 놓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뱃머리가 놓이는 방향을 엇갈리게 했습니다. 뱃머리가 강의 상류를 향하도록 놓은 배 옆에는 뱃머리가 하류를 향하도록 다른 배를 놓고 그 옆에는 다시 뱃머리가 상류를 향하도록 또 다른 배를 놓은 것입니다. (화면에서 뱃머리가 엇갈려 있는 부분을 가리키며) 이 화면을 보시면 잘 이해될 겁니다. 이렇게 배들을 배치했기 때문에 닢끼리 엉키지 않고, 센 물살에도 배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배와 배 사이는 쇠사슬로 연결하여 널빤지를 놓고 그 위에 잔디를 깔아서 땅과 같은 느낌으로 다리를 건너게 했다고 합니다.

배다리는 정조 시대 이전에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정조 시대 이전에는 수백 척의 민간 배를 모아서 다리를 설치했기 때문에 연결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렸고, 설치에 들었던 물품도 버려져서 낭비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조 때는 주로 관청의 배를 이용하여 강쪽에 맞추어 큰 배로 몸체를 만들고 다리 높이도 계산해서 배를 배치했기 때문에 필요한 배의 수를 이전보다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물품도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까닭으로 정조 때는 이전보다 훨씬 단기간에 절감된 비용으로 배다리를 설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다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주변을 살펴 본 후) 없으시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다음은 발표를 위해 모듬에서 논의한 내용이다. 위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발표를 시작할 때 친구들이 배다리와 관련 있는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한다.
- ② 발표 화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함께 제시한다.
- ③ 어떤 경우에 배다리를 설치해 사용했는지를 알려 준다.
- ④ 배다리를 설치한 방법을 설명해 배다리의 특징을 드러낸다.
- ⑤ 배다리의 모양이 시대에 따라 변해 온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2. 위 발표를 듣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배열되어 있는 배들의 닢이 엉키지 않은 것은 뱃머리가 놓이는 방향을 엇갈리게 했기 때문이겠군.
- ② 배다리가 아치형 모양이 된 것은 강 가운데에는 큰 배를 놓고 강변 가까이에는 작은 배를 놓았기 때문이겠군.
- ③ 정조 때 배다리의 설치 기간이 이전보다 단축된 것은 민간의 협조로 민간의 배를 더 많이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겠군.
- ④ 정조 때보다 정조 시대 이전에 배다리의 설치 비용이 많이 든 것은 배다리를 설치할 때마다 필요한 물품을 새롭게 제작하거나 구해야 했기 때문이겠군.
- ⑤ 설치와 해체를 반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마다 배다리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에는 폭이 넓은 강에 다리를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겠군.

3.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후에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학생 1: 배다리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알려 주기 위해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했겠구나.

학생 2: 시각 자료를 활용해 발표를 함으로써 청중의 흥미와 관심을 끌었으며, 청중이 발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3: 다산 정약용 생가에서 본 배다리 모형이 인상 깊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발표 내용이 흥미로웠어.

학생 4: 발표에서 사용한 자료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믿을 만한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어.

학생 5: 정조가 배다리를 건너 아버지의 묘소를 참배한 것이 열두 번이나 된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배다리를 만들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했겠어.

- ① 학생 1은 발표자의 준비 과정을 추측하며 들었다.
- ② 학생 2는 매체 자료 활용의 효과에 주목하며 들었다.
- ③ 학생 3은 발표 내용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며 들었다.
- ④ 학생 4는 발표에 활용된 자료의 신뢰성을 점검하며 들었다.
- ⑤ 학생 5는 발표 내용을 자신의 배경 지식과 관련지어 들었다.

[4~5] 다음은 인터뷰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학생 기자 김민희입니다. 이번에 △△박물관에서 특별 기획전으로 ‘마야 문명 특별전’을 한다고 해서 ‘마야 문명’ 관련 기사를 써 보려고 오늘 학예 연구사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혹시 일하시는 데 방해가 된 건 아닐까요?

연구사: ㉠(웃으며) 만나서 반가워요. 크게 바쁜 일은 없으니까 염려 마세요.

학생: 감사합니다. 먼저 마야 문명이 어떤 문명이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구사: 마야 문명은 기원전에 발생해 기원후 1,500년 무렵까지 메소아메리카에서 꽃피었던 문명입니다.

학생: 메소아메리카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가요?

연구사: 오늘날의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이 위치한 중앙아메리카 지역 일대를 메소아메리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마야인들이 자기 고유의 문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요?

학생: 그건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연구사: 그럼 이 소책자를 먼저 보세요. 마야 문자는 일종의 상형 문자였는데, 매우 아름답고 장식적이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학생: ㉢와! 정말 아름답네요. 연구사님 말씀처럼 하나의 조각 작품을 보는 것 같아요. 참,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마야 문명은 0의 개념을 사용하는 등 수학과 과학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구사: 맞아요. 마야 문명에서는 0의 개념을 이해하고 20진법을 사용하는 등 수학, 의학, 건축술 등의 분야가 발전해 있었고 뛰어난 경제 제도도 갖추고 있었어요. 또한 천문학도 발전하여, 지구가 둥글며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일식과 월식 등도 잘 이해하고 있었답니다. 이를 토대로 매우 정확한 달력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어요. 아마 종말론과 관련하여 마야 달력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 봤을 거예요.

학생: 네,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달력이 왜 종말론과 연결되었던 것인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구사: 마야 달력은 태양의 주기를 정확하게 계산해 정밀하게 만든 달력이었는데, 2012년 12월 동지 무렵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서 한때 종말론을 유행시켰던 겁니다. 물론 대다수의 학자들은 달력의 한 주기가 끝나면 다시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종말을 예언한 것은 아니라며 그런 주장을 일축했어요.

학생: 그랬었군요. 그런데 이처럼 뛰어난 문명이 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연구사: 아무래도 서구 중심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가려져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마야 문명 특별전’을 기획하게 된 겁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마야 문명에 대해 학생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친구들에게 많이 알려 주길 부탁드립니다.

학생: 말씀을 들어 보니 많은 친구들이 와서 보면 정말 유익하겠네요. 저도 꼭 와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방이 가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 ② ㉡: 설명하려는 내용과 관련 있는 상대방의 배경지식을 확인하고 있다.
- ③ ㉢: 상대방의 설명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자신의 학습 경험을 환기하여 상대방의 발언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⑤ ㉤: 질문의 형식을 통해 앞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5. 위 내용과 <보기>를 바탕으로 교지의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나눈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인터뷰를 다녀온 후 결정한 기사 작성 지침 >

- 표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가 인상적으로 전달 되도록 제시한다.
- 기사의 내용은 인터뷰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잘 반영되도록 구성한다.
- 인터뷰 과정에서 언급된 생소한 지역의 명칭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한다.
- 인터뷰한 내용 중 시각화가 필요한 내용은 시각 자료를 함께 신도록 한다.
- 인터뷰 과정에서 전문가가 당부한 내용이 기사 내용에 포함되도록 한다.

- ① 세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마야 문명을 소개하는 것이니까 표제는 ‘고대 문명의 숨은 보석, 마야 문명을 찾아서’로 하면 좋을 것 같아.
- ② 정훈: 인터뷰한 내용은 크게 고대 문명의 일반적 특징과 마야의 역사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기사 내용도 이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면 좋겠어.
- ③ 수연: ‘메소아메리카’가 어느 지역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 이 지역에 속하는 국가들을 구체적으로 함께 언급해주는 게 좋겠어.
- ④ 보미: ‘마야 문자’와 관련된 내용은 시각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 소책자에 나와 있는 사진을 함께 신도록 하는 게 좋겠어.
- ⑤ 민희: 학생들이 마야 문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 학예 연구사님의 말씀을 기사의 마무리 부분에 실으면 좋겠어.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얼마 전 뉴스에서 물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물 발자국’과 관련한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이르는 ‘탄소 발자국’은 알고 있었지만, 물 발자국은 처음 듣는 말이었다. 물 발자국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와 관련한 정책을 왜 도입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관련 서적, 신문 기사, 인터넷 자료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알게 된 것 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학교 신문에 글을 신기로 했다.

(나) 학생의 초고

세계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달 등으로 물 수요량은 크게 증가했지만 지표면에 유입되는 물의 양은 일정하여 1인당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한 오염수의 증가로 수질은 갈수록 ㉠ 악화되어 갈 것이라 전망한다. 이에 유네스코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물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의 하나로 ‘물 발자국’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물 발자국은 일상생활이나 산업 활동의 과정에서 소비하는 물을 양으로 표시한 것이다. ㉡ 물은 인간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때 물의 소비량은 농산물, 축산물, 공산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물뿐 아니라 제품의 유통과 소비 단계에 사용되는 물까지 고려하여 ㉢ 표출한다. 가령, 100g짜리 두부를 만들 때 원료인 콩 재배 과정에서 1,427L, 다 자란 콩을 다듬는 과정에서 21.6L, 포장 과정에서 0.034L의 물이 사용되었다면 이를 모두 합친 물의 양인 1,448.634L가 100g짜리 두부의 물 발자국이다.

물 발자국은 생산과 소비 등의 활동이 물의 직간접적 이용에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알려 준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물 관리 정책, 환경 정책, 농업 정책, 산업 정책, 에너지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또 물을 사용하는 민간 차원에서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 오염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물의 과다한 소비는 수자원 고갈의 원인이 되며 이는 보건, 산업, 생태계 등에 두루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물 발자국과 관련한 정책을 실시하면 물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물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미 스페인과 호주에서는 이런 정책을 실시하여 물의 효율적 이용과 분배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 그리고 이제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도 물 발자국과 관련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가)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이 아닌 것은?

- ① 글쓰기는 의미 있는 정보를 독자와 함께 나누는 활동이다.
- ② 글쓰기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생성하는 활동이다.
- ③ 글쓰기는 화제를 바탕으로 친교적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두는 활동이다.
- ④ 글쓰기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활동이다.
- ⑤ 글쓰기는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활동이다.

7. 다음은 (나)를 쓰는 과정에서 세운 글쓰기 계획과 그 계획을 점검·조정한 결과이다. (나)로 미루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글쓰기 계획	점검·조정의 결과
물 발자국과 관련한 사례를 제시하며 글을 시작해야겠어.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물 발자국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제시하였다. …… ㉠
물 발자국의 개념을 탄소 발자국의 개념과 비교하여 설명해야겠어.	탄소 발자국은 글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물 발자국의 개념으로 내용을 한정하였다. …… ㉡
물 발자국의 적용 대상과 측정 방법을 자세히 제시해야겠어.	적용 대상보다는 측정 방법이 중요하므로 물 발자국의 측정 방법을 다양한 예를 통해 제시하였다. …… ㉢
물 발자국이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밝혀야겠어.	민간 차원도 중요하므로 물 발자국의 활용 방안을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 ㉣
물 발자국과 관련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야겠어.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물 발자국과 관련한 정책을 실시하여 효과를 본 외국의 사례를 언급하였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8. (나)의 ㉠~㉤을 고쳐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피동 표현이 중복되었으므로 ‘악화될’로 고친다.
- ② ㉡: 문단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한다.
- ③ ㉢: 단어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산출’로 고친다.
- ④ ㉣: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되었으므로 ‘오염된 물을’로 고친다.
- ⑤ ㉤: 문장의 연결 관계가 어색하므로 ‘그러나’로 고친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업 상황]

‘밤샘 책 읽기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작문 과제를 부여하였다.

작문 과제 1

‘밤샘 책 읽기 행사’에서 읽은 책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독서 감상문을 써 보자.

작문 과제 2

‘밤샘 책 읽기 행사’에 참여한 소감을 한 편의 글로 작성해 보자.

9. 다음은 **작문 과제 1**을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과 ㉡를 중심으로 파악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두: ‘밤샘 책 읽기 행사’에서 읽은 책들 중에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로스’의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본문 1: 이카로스는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게 되었다. 그는 너무 높이 날지 말라는 아버지의 조언을 잊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좇아 태양 가까이 올라가다 그만 날개가 태양에 녹아 바다로 추락하여 죽고 만다.
 본문 2: 이 이야기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인간의 ㉠ ‘무모한 도전’은 결국 파멸을 가져오고 만다는 교훈을 준다. 하지만 이것은 주어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 ㉡ ‘무한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실패할지라도 그런 도전이 없었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진보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말: 나도 나의 한계를 정해 놓고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겠다.

- ①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과 문제의 원인이 되는 ㉡를 연결시켜 인물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분석한다.
- ② 관습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과 개성적인 의미를 지닌 ㉡를 종합하여 자신의 지나온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 ③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을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와 비교하여 인물의 행동에 나타난 문제점을 부각한다.
- ④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 대신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의 의미를 인물의 행위에 부여하여 글쓴이가 앞으로 가져야 할 태도와 연결한다.
- ⑤ 관념적으로 이해했던 ㉠을 자신의 체험을 통해 재고해 봄으로써 ㉡라는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여 글쓴이와 공동체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한다.

10. 다음은 **작문 과제 2**를 수행하기 위해 세운 계획과 이것을 반영한 학생의 글이다. ㉠~㉤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 작문 계획 >

- ㉠ ‘밤샘 책 읽기 행사’에 참가하게 된 동기를 밝힌다.
- ㉡ 행사의 일정에 따라 내용을 전개한다.
- ㉢ 행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주최 측에 바라는 점을 제시한다.
- ㉣ 행사에 참여하여 얻은 깨달음을 제시한다.
- ㉤ 후배들에게 행사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얼마 전 담임 선생님의 안내로 ‘밤샘 책 읽기 행사’를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책을 읽는데 꼭 밤까지 새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망설였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독서 체험을 함으로써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행사는 오후 4시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진행되었는데, 독서 퀴즈, 저자와의 대화, 자유 독서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 행사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저녁 식사 후에 진행된 ‘저자와의 대화’ 시간이었다. 우리 학교 졸업생이면서 최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소설가 김○○ 선배가 함께해 주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 한 편의 소설을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소설가는 이야기의 단순한 생산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살아가는 힘없는 이웃들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다.

또한 그동안 읽고 싶었던 『그리스 신화』를 이 기회에 읽을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다. 그 밖에 독서 퀴즈도 재미있었고, 조별로 함께한 야식 시간도 즐거웠다. 다만 야식으로 나온 음식들이 너무 식어서 모두들 불만스러워했는데, 다음에는 주최 측이 더 세심하게 준비해서 이런 점은 개선되면 좋겠다.

이번 ‘밤샘 책 읽기 행사’는 나에게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동안 입시 준비로 바빠서 책 한 권 읽기도 쉽지 않았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독서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시간도 내서 해야 하는 것임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후배들에게도 내년에 있을 ‘밤샘 책 읽기 행사’에 꼭 참여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보 기 >

비음화는 ㉠ 홀받침 또는 쌍받침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자음만으로만 발음되는 현상을 겪은 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 결받침이 그 중 한 자음만 발음되는 현상을 겪은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 | | |
|------------|--------|
| ㉠ | ㉡ |
| ① 짝[깡]는 | 흡만[흥만] |
| ② 끝물[끈물] | 앉자[안짜] |
| ③ 듣는[든는] | 옴는[음는] |
| ④ 솟내[순내] | 닿은[다른] |
| ⑤ 앞마당[암마당] | 값이[갑씨] |

12. <보기>를 바탕으로 하여 조사의 특성에 대해 탐구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형(은/*는) 학교에 가고, 나(*은/는) 집에 갔다.
- 민수(가/는) 운동(을/은) 싫어한다.
- 나는 점심에 국수 먹었는데 너는 무엇을 먹었어?
- 어서요 읽어 보세요.
- 빵만으로 살 수 없다.

(*는 비문법적인 표현임.)

- ① 격 조사 자리에 보조사가 올 수도 있군.
- ② 격 조사는 담화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군.
- ③ 앞에 오는 말의 받침 유무에 따라 조사를 선택하기도 하는군.
- ④ 보조사는 체언뿐 아니라 부사 뒤에도 붙을 수 있군.
- ⑤ 보조사는 격 조사와 결합할 때 격 조사 뒤에만 붙을 수 있군.

13.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ㄱ. 지훈이가 눈이 크다.
 ㄴ. 그는 지훈이가 성실하고 눈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① ㄱ의 ‘크다’와 ㄴ의 ‘알고 있었다’는 전체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한다.
- ② ㄱ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므로 홀문장이다.
- ③ ㄴ의 ‘성실하고’와 ‘크다’의 주어는 모두 ‘지훈이가’로 동일하다.
- ④ ㄴ의 안긴문장에서 앞뒤 절은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 ⑤ ㄴ의 안긴문장은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다.

14. <보기>의 국어사전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배¹ [배] ㉠
 「1」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위장, 창자, 콩팥 따위의 내장이 들어 있는 곳으로 가슴과 엉덩이 사이의 부위.
 ㉡ 배가 나오다.
 「2」 긴 물건 가운데의 불룩한 부분.
 ㉢ 배가 부른 마대 자루.

배² [배] ㉡
 사람이나 짐 따위를 신고 물 위로 떠다니도록 나무나 쇠 따위로 만든 물건.
 ㉣ 배를 띄우다.

배³(倍) [배:] ㉢
 (주로 고유어 수 뒤에 쓰여) 일정한 수나 양이 그 수만큼 거듭됨을 이르는 말.
 ㉤ 힘이 세 배나 들다.

- ① ‘배¹’은 하나의 표제어 아래 여러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의어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배¹’의 「2」의 용례로는 ‘배가 불룩한 돌기둥’을 들 수 있군.
- ③ ‘배²’를 활용한 속담으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를 들 수 있군.
- ④ ‘배³’은 소리의 길이에 의해 ‘배¹’, ‘배²’와 의미가 변별될 수 있겠군.
- ⑤ ‘배¹’, ‘배²’, ‘배³’은 모두 의미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각각 등재하는군.

15. <보기>의 ㉠ ~ ㉤은 모두 중의적인 문장이다. 괄호의 의미만을 나타내도록 수정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교실에 학생들이 다 오지 않았다.
 (→ 학생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의미로)

㉡ 현규와 숙희는 어제 결혼하였다.
 (→ 현규가 숙희의 남편이 되었다는 의미로)

㉢ 이것은 선생님의 그림이다.
 (→ 그림 속 인물이 선생님이라는 의미로)

㉣ 아버지께서 귤과 사과 두 개를 가져오셨다.
 (→ 과일 세 개 중 두 개가 사과라는 의미로)

㉤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 표정이 밝은 사람은 그녀라는 의미로)

- ① ㉠: ‘않았다’를 ‘못했다’로 바꾼다.
- ② ㉡: ‘현규와 숙희는’을 ‘현규는 숙희와’로 교체한다.
- ③ ㉢: ‘선생님의’를 ‘선생님을 그린’으로 교체한다.
- ④ ㉣: ‘귤과 사과 두 개’를 ‘귤 한 개와 사과 두 개’로 바꾼다.
- ⑤ ㉤: ‘밝은 표정으로’를 ‘사람들에게’의 뒤로 옮긴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기가 주어진 온도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수증기를 가질 때, 대기는 포화 상태에 있다고 한다. 이때 수증기에 의한 압력을 포화 수증기압이라고 하며, 이 값은 온도가 높을수록 크다. 대기의 수증기압이 포화 수증기압에 도달하면 응결이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구름은 기온 냉각으로 인해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압이 포화 수증기압을 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다. 즉 기온 냉각으로 포화 수증기압이 감소하면 포화 수증기압을 초과한 여분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수적(물방울)이 만들어진 후 이것이 계속 충돌과 병합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여 구름이 형성된다. 수적의 형성과 성장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형성 초기의 수적은 극히 작은 크기의 구형이기 때문에 곡률*이 크다. 곡률이 클수록 수적은 성장하기 어렵다. 곡률이 큰 수적에서 표면 장력*은 주위의 수증기 분자가 수적 속으로 들어가는 어렵게 만드는 데 반해 수적 표면의 물 분자가 주위로 증발하기는 쉽게 만든다. 왜냐하면 수증기 분자가 수적 속으로 들어가서 증가되는 표면적은 수적의 크기가 작을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수적 표면에서 수증기 분자가 이탈하면 표면적이 감소하므로 쉽게 증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곡률이 큰 수적일수록 수증기압이 높아야 응결이 잘 일어날 수 있다. 이처럼 수적의 곡률은 수적의 성장에 필요한 수증기압 정도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를 곡률 효과라 한다.

그렇지만 실제 자연에서는 대기의 수증기가 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적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대기 중에 부유하는 여러 가지 미립자, 즉 에어로졸이 수적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에어로졸 중 상당수는 흡습성이 있어서 상대 습도* 100% 이하에서도 수증기를 응결시키는 핵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대기 중 응결핵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대기 오염의 영향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응결핵은 수증기 분자가 쉽게 응결할 수 있는 표면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큰 에어로졸들이 작은 것보다 수적 형성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 흡습성 에어로졸을 응결핵으로 하는 수적 형성을 비균질핵 생성이라 한다.

비균질핵 생성으로 인해 대기가 포화 상태가 아닐 때에도 수증기 분자를 흡착하여 수적이 만들어지는 한 가지 예를 살펴보자. 대기 중 해염(바다 염류) 입자가 응결핵으로 작용할 경우, 수적 형성 과정에서 해염이 녹는다. 즉 수증기의 응결에 의해 생성된 수적이 용매 역할을 하여 용질에 해당하는 해염을 녹이게 된다. 수적에 용질이 녹아 있을 경우 수적의 표면은 물 분자와 용질 분자로 구성되어 순수한 물로 되어 있을 때보다 물 분자 수가 적다. 그래서 그 표면에서 물 분자의 증발률이 순수한 물보다 작아진다. 그 결과 해염이 녹아 있는 수적의 경우 성장에 필요한 수증기압은 순수한 수적의 경우보다 낮아진다. 이처럼 용액의 농도에 따라 수적의 성장에 필요한 수증기압 정도가 달라지는데, 이를 용질 효과라 한다.

* 곡률: 굽은 정도를 나타낸 값으로 작은 원일수록 곡률이 큼.
* 표면 장력: 액체의 표면이 수축해서 가능한 한 작은 면적을 취하려는 힘.
* 상대 습도: 특정 온도에서 최대로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압에 대한 현재 수증기압의 백분율.

16. 밑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하며 현상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자연 현상에 대한 다양한 실험 결과를 종합하며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 ③ 개별 현상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비교하며 과학사적 의의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보편적 현상을 이해하는 특정한 방법론을 대조하며 논점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 ⑤ 특정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을 보여 주며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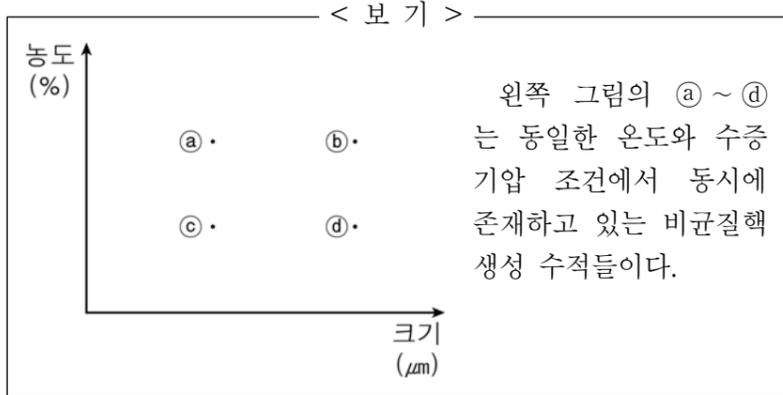
17. 밑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구름은 수적이 충돌과 병합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여 만들어진다.
- ② 순수한 물로 만들어진 수적보다 용질이 녹아 있는 수적이 성장하기에 더 용이하다.
- ③ 실제 대기의 응결핵은 자연적으로 생성되기도 하지만 대기 오염의 영향으로 생성되기도 한다.
- ④ 대기가 냉각되면 포화 수증기압이 높아져 수적이 구름으로 형성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⑤ 포화 수증기압은 대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압이 아니라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압을 나타낸다.

18.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은 구름이나 안개 형성에 있어서 응결핵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깨끗한 대기일수록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다.
- ② ㉠은 에어로졸이 응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으로 인해 과포화가 아닌 상태에서도 응결이 일어난다.
- ③ ㉠은 수적의 형성에 응결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의 크기가 작을수록 응결이 쉽게 일어난다.
- ④ ㉠은 공기 속에 포함된 수적의 포화 상태를 보여 주는 것으로서, ㉠으로 인해 수적은 상대 습도가 100% 이상인 곳에서만 존재한다.
- ⑤ ㉠은 대기 속에 존재하는 수증기 분자의 크기를 보여 주는 것으로서, 실제 대기에서 응결이 일어나려면 수증기 분자가 커야 한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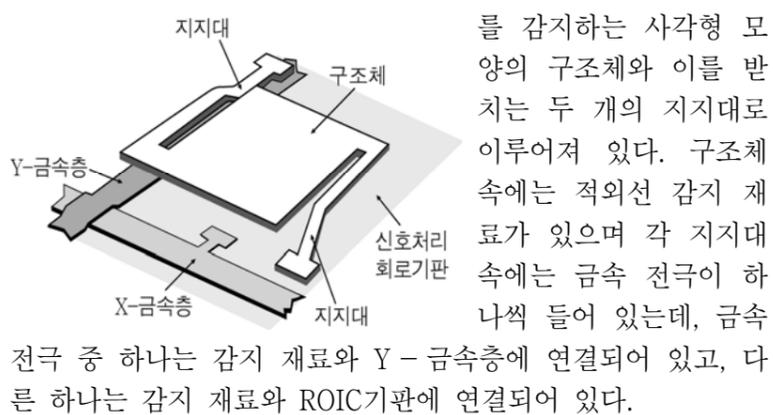
- ① 표면 장력이 끼치는 영향은 ㉠보다 ㉡에서 더 작다.
- ② ㉠와 ㉡에서의 용질 효과는 수적의 성장에 필요한 수증기압의 증가 효과를 나타낸다.
- ③ 용질 효과는 ㉢에서보다 ㉣에서 더 크므로, ㉣의 수적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
- ④ 곡률 효과는 ㉣에서보다 ㉢에서 더 크므로, ㉣의 수적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
- ⑤ ㉠ ~ ㉣는 대기가 수증기로 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만들어진다.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피사체로부터 방출되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를 검출해서 피사체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고, 그 온도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화면에 구현해 주는 장치이다. 이것은 절대 영도, 즉 -273°C 보다 높은 온도를 갖는 모든 물체는 적외선을 방출하고 있으며 물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방출량이 많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제작되었다.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크게 렌즈, 검출기, 신호처리장치, 모니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외선의 파장은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길기 때문에 일반 카메라 렌즈는 적외선이 잘 통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적외선은 잘 통과하고 가시광선은 잘 통과하지 않는 물질인 게르마늄과 규소를 사용하여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렌즈를 만든다. 렌즈를 통과한 적외선은 검출기에 도달한다.

검출기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며, 주로 볼로미터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마이크로볼로미터를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적외선 복사 에너지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마이크로볼로미터는 <그림>에서 보듯이 신호처리회로(ROIC)기판 위에 적외선 복사 에너지를 감지하는 사각형 모양의 구조체와 이를 받치는 두 개의 지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구조체 속에는 적외선 감지 재료가 있으며 각 지지대 속에는 금속 전극이 하나씩 들어 있는데, 금속 전극 중 하나는 감지 재료와 Y-금속층에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감지 재료와 ROIC기판에 연결되어 있다.



검출기의 구조체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하고 그에

반응하여 온도도 상승해야 한다. 하지만 구조체가 적외선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발생하는 열은 수 나노와트(nW)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이 열이 효과적으로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기 위해서는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 손실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따라서 지지대는 단면적이 작고, 열전도율이 작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조체와 ROIC기판 사이는 진공 상태로 되어 있다. 구조체의 감지 재료는 미세한 온도 증가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반도체를 사용하며, 그중 ㉠음(-)의 저항 온도 계수가 높은 산화 바나듐을 많이 쓴다. 저항 온도 계수란 온도 상승에 따라 저항 값이 변화하는 비율을 말하며,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전기 저항이 감소하는 물질은 음의 저항 온도 계수를, 전기 저항이 증가하는 물질은 양(+의 저항 온도 계수를 가진다. 결국 적외선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구조체는 온도가 올라가며, 구조체 속 감지 재료의 온도도 상승한다. 이로 인한 감지 재료의 전기 저항 감소는 출력 전압의 증가로 이어지고, 증가된 전압은 지지대의 금속 전극을 통해 ROIC기판에 전류를 흐르게 한다.

ROIC기판과 연결된 신호처리장치는 전류의 세기에 따라 물체의 표면 온도를 판별한다. 그런데 물체에서 방출된 적외선 복사 에너지는 렌즈에 도달하기도 전에 대기 중 입자에 흡수되거나 산란되어 손실될 수 있으며, 거리가 멀수록 손실 정도가 더 커진다. 따라서 피사체와의 거리, 대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온도 값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보정하고, 그 온도 값에 따라 각각 다른 색상으로 모니터 화면에 피사체의 열화상을 구현한다. 마이크로볼로미터 하나가 모니터 화면의 한 픽셀에 해당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검출기의 마이크로볼로미터 개수가 많을수록 화면에 나타나는 화질은 그만큼 향상된다.

2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마이크로볼로미터의 적외선 감지 재료에는 두 개의 금속 전극이 연결되어 있다.
- ②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에 열화상이 나타난 사물은 절대 영도보다 높은 온도를 지닌다.
- ③ 마이크로볼로미터의 지지대는 열 손실을 막기 위해 열전도율이 낮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
- ④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의 렌즈에 도달한 적외선 복사 에너지의 강도는 피사체와의 거리에 비례한다.
- ⑤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렌즈는 적외선을 더 잘 통과시키기 위해 게르마늄과 규소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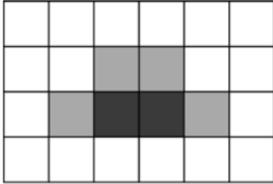
21.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저항 값이 커서 구조체와 지지대의 온도를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 ② 구조체가 적외선 복사 에너지의 증가에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 ③ 구조체의 출력 전압을 낮추어 신호처리회로기판에 흐르는 전류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④ 온도 증가에도 저항 값의 변화가 없어 일정한 전류를 신호처리회로기판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온도 증가에 따른 전기 저항의 감소 비율이 커서 피사체의 온도 차이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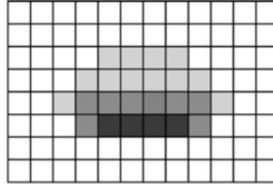
2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 보 기 >

다음은 동일한 사물을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A와 B로 찍은 결과물이다. (단, A와 B 모두 같은 렌즈를 사용하고 모니터 화면의 크기도 같음. 모니터 화면을 구성하는 작은 네모는 픽셀을 의미함.)



A의 모니터 화면 [a]



B의 모니터 화면 [b]



온도 높음
온도 낮음

- ① A는 B보다 마이크로볼로미터의 개수가 더 많겠군.
- ② B가 A보다 사물의 표면 온도를 더 세분화하여 보여 주는군.
- ③ A와 B는 모두 사물에서 방출된 적외선 복사 에너지를 검출해 A는 [a]를, B는 [b]를 구현하는군.
- ④ [a]와 [b] 모두 프로그램을 통해 온도 값을 보정한 결과이겠군.
- ⑤ [a]와 [b] 각각에서 음영이 진한 픽셀은 흐린 픽셀보다 적외선 감지 재료의 온도가 높음을 보여 주는군.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근본적 규범으로, 국가 구성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합의이자 국가를 구성하는 최상위 법규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법적 안정성이 중시된다. 그러나 변화하는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대응하여 규범력을 유지하거나, 질서 정연하고도 집약적으로 헌법을 구성하기 위해 헌법이 개정되기도 한다.

헌법의 개정이란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헌법의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추가함으로써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기존의 헌법을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그 헌법의 토대가 되어 있는 헌법 제정 권력까지도 배제하는 헌법의 파기와는 ㉠ 다르다.

헌법의 개정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입장이 다른데, 이는 대체로 개정 무한계설과 개정 한계설로 ㉡ 나뉜다. ㉢ 개정 무한계설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를 밟으면 어떠한 조항이나 사항이더라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 무한계설에서는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 사이의 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 개정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의 구별을 부인하여 헌법 최고의 법적 권력은 헌법 개정 권력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현재의 헌법 규범이나 가치에 의해 장래의 세대를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 밝힌다. 그

러나 개정 무한계설은 법 규범이 가지는 실질적인 규범력의 차이는 외면한 채 헌법 개정에 있어서 형식적 합법성만을 절대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개정 한계설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를 ㉥ 따르지라도 특정한 조항이나 사항은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 한계설에서는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을 다른 것으로 구별하여 헌법 개정 권력은 헌법 제정 권력의 소재(所在)를 변경하거나 헌법 제정 당시의 국민적 합의인 헌법의 기본적인 가치 질서를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헌법 제정자가 내린 근본적 결단으로서의 헌법은 개정 대상이 될 수 없거나, 헌법 위에 존재하는 자연법*의 원리에 ㉦ 어긋나는 헌법 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 주권 원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은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해서도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자연법: 인간 이성을 통하여 발견한 자연적 정의 또는 자연적 질서를 사회 질서의 근본 원리로 생각하는 보편타당한 법.

2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헌법은 국가 구성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합의를 담고 있다.
- ② 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특정 조항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이다.
- ③ 개정 한계설에 따르면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은 구별된다.
- ④ 개정 한계설은 법 규범이 가지는 실질적인 규범력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⑤ 개정 무한계설은 현재의 헌법 규범이 장래의 세대를 구속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다.

24. '개정 한계설'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A 국가의 헌법 제정 권력은 귀족들이었으며 A 국가의 헌법에는 국가 형태로 군주제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민혁명이 일어나 군주제가 붕괴되고 국민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회가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공포했다. 이 새로운 헌법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를 따르고 있다.

- ① 기존 헌법의 가치 질서를 유지하므로 헌법의 파기가 발생한 것이다.
- ② 헌법 제정 권력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헌법의 개정이 발생한 것이다.
- ③ 의회가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으므로 헌법의 개정이 발생한 것이다.
- ④ 군주제였던 국가 형태가 민주제로 바뀌었으므로 헌법의 개정이 발생한 것이다.
- ⑤ 기존의 헌법이 소멸되고 헌법 제정 권력이 바뀌었으므로 헌법의 파기가 발생한 것이다.

25. <보기>를 통해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19세기 근대법 체계가 정비되면서 법률 실증주의가 대두되었다. 법률 실증주의자들은 국가 기관에 의해 실제로 제정된 실정법만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법의 이론이나 해석·적용에 있어서 오직 법 자체의 형식 논리만을 중시한다. 이렇게 형식적 합법성만을 중시하는 태도는 실정법을 초월하는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연법사상과 대립된다.

- ① 형식적 합법성만을 중시하는 이론이나 해석에서는 ㉠을 지지하겠군.
- ② 실제로 제정된 실정법만이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을 인정하겠군.
- ③ 법률 실증주의자들은 법 자체의 형식 논리를 중요시하므로 ㉠을 주장하겠군.
- ④ 헌법 위에 자연법이 존재한다고 보는 학자들은 자연법사상을 ㉡의 근거로 삼겠군.
- ⑤ 실정법을 초월하는 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관점의 학자들은 ㉡에 수긍하겠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상에서 우리는 별개의 대상을 같은 이름으로 ㉠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그것들이 무엇인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옆집에서 키우는 ‘진돗개’와 우리 집에서 키우는 ‘치와와’를 생김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개’라고 부른다면, ‘개’라는 이름이 뜻하는 그 무엇, 즉 ‘개’라는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속성을 ‘진돗개’와 ‘치와와’가 공유하는 것으로 보아 둘 모두를 ‘개’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개념이 범주화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개념과 범주는 무엇일까? 개념은 특정한 사물이나 사건, 상징적인 대상들의 공통된 속성을 추상화하여 종합화한 보편적 관념을 말하고, 범주는 같은 성질을 가진 부류나 범위라고 말할 수 있다. 개념은 내포(內包)와 외연(外延)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포는 개념이 적용되는 범위에 속하는 여러 사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필연적 성질 전체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생물이라는 말의 경우 ‘생명을 가지고 생활 현상을 영위하는 존재’가 내포가 된다. 반면 외연은 그 개념이 ㉡ 지시할 수 있는 대상 전체의 범위를 가리킨다. 생물이라는 말의 외연은 생물이라는 개념이 지시할 수 있는 대상 전체, 곤충, 동물, 식물 등이 된다. 이는 외연이 범주화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범주화란 특정한 사례가 특정한 범주의 구성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특정한 개념이 다른 개념의 부분 집합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범주화는 위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하위 범주인 ‘작은북’은 상위 범주인 ‘북’의 부분 집합이 되며, ‘북’은 보다 높은 상위 범주인 ‘타악기’의 부분 집합이 되는 식이다. 이러한 범주화는 인간이 사물과 현상을 변별하고, 이해하고, 추론하고, 기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만일 사람이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그 경험을 개별적인 속성에 기초해서 독특한 것으로 지각한다면 엄청나게 다양한 경험에 ㉢ 압도당할 것이며, 접하는 것들의 대부분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접하는 모든 대상들을 그 이전에 경험한 어떤 것보다도 같지 않은 속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한다면 경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경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범주화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물이나 현상들을 의미 있는 단위로 분할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며, 그 사물이나 현상들과 관련 있는 이후의 일들을 ㉣ 예상할 수 있게도 해 준다. 예를 들어 ‘침엽수’가 침 모양의 잎사귀를 가지고 있으며, 건조와 추위에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을에 여행을 가서 침 모양의 잎사귀를 가진 나무를 본다면, 그는 그 나무를 침엽수로 범주화하여 그 나무가 겨울의 매서운 추위에도 잘 견딜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주화는 인류가 오랫동안 지식을 ㉤ 축적해 온 방법으로 유용한 도구이지만 범주화에 기초해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성급하게 범주화하여 오만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판단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범주화할 수 있어야 한다.

2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상등하다
- ② ㉡: 분포된다
- ③ ㉢: 피력한다
- ④ ㉣: 승계할지라도
- ⑤ ㉤: 소급되는

27. 밑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범주화의 다양한 종류
- ② 범주화의 위계적 성격
- ③ 내포와 외연의 의미
- ④ 개념의 범주화 기능
- ⑤ 범주화의 유용성

28. 밑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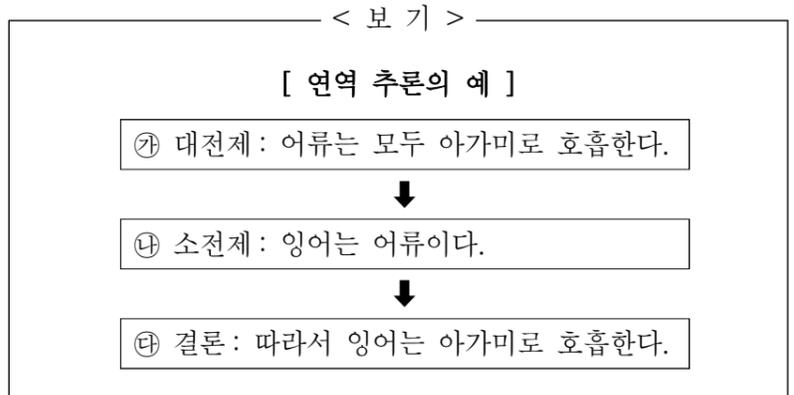
ㄱ. A는 곤충이 다리가 세 쌍이며 거미는 다리가 네 쌍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거미를 보고 거미와 곤충의 유사한 모습에만 주목해 거미가 곤충에 속한다고 말했다. 곤충과 거미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 B는 그 말을 듣고 거미는 곤충이 아니라고 A에게 알려 주었다.

ㄴ. 유아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과, 개, 장미, 소, 국화, 포도 그림을 보여 주며 어떤 그림을 봤는지를 외워 보라고 했다. 유아들은 그림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외운 반면, 청소년들은 그림들을 ‘과일’, ‘꽃’, ‘가축’으로 나누어 외웠다.

ㄷ. C는 수업 시간에 영상물을 통해 기도가 막혔을 때의 응급 처치 방법을 배웠다.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한 친구가 갑자기 목을 부여잡고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C는 영상물에서 본 상황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여 응급 처치를 시행하였다. 그 덕분에 그 친구는 무사했다.

- ① ㄱ에서 A는 거미가 지니고 있는 곤충과의 유사한 모습에 주목하여 범주화했겠군.
- ② ㄱ에서 B는 거미의 개념과 관련해 곤충과 구별되는 거미의 속성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A가 잘못 범주화한 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었겠군.
- ③ ㄴ에서 그림의 개수가 더 많아지면 ‘유아들’이 제시된 그림들을 모두 기억하는 데 겪는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겠군.
- ④ ㄴ에서 ‘청소년들’은 ‘사과, 개, 장미, 소, 국화, 포도’ 각각의 그림 속 대상이 지닌 독특한 고유의 특성에 주목해 외웠겠군.
- ⑤ ㄷ에서 C는 ‘친구’가 숨을 못 쉬게 된 것을 기도가 막혔을 때의 증상으로 범주화했기 때문에 영상물을 본 경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군.

29. 밑글을 토대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아가미로 호흡한다’는 것은 ‘어류’의 외연에 해당한다.
- ② ㉡는 ‘어류’의 모든 내포가 ‘잉어’의 모든 내포와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아 범주화한 것이다.
- ③ ㉡는 ‘어류’라는 범주에 해당하는 속성이 ‘잉어’에 부여되었기 때문에 도출되는 것이다.
- ④ ㉠과 ㉡가 각각 대전제와 소전제가 되는 것은 ‘잉어’의 외연이 ‘어류’의 외연보다 크기 때문이다.
- ⑤ ㉡에서 ‘잉어’는 ‘어류’의 상위 범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에서 ‘아가미로 호흡한다’는 속성을 가진다.

30.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르는 일.
- ② ㉡: 가리켜 보임.
- ③ ㉢: 보다 뛰어난 힘이나 재주로 남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함.
- ④ ㉣: 어떤 일을 직접 당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여 됨.
- ⑤ ㉣: 보호하고 간수해서 남김.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멋진 날들을 놓아 두고
시를 쓴다.
고궁엔 **벚꽃**,
그늘엔 **괴인 술**,
멋진 날들을 그대로 두고
시를 쓴다.

내가 시를 쓸 때
이 땅은 나의 적은 섬,
별들은 오히려 큰 나라.

멋진 약속을 깨뜨리고
시를 쓴다.

종아리가 곧은 **나의 사람**을
태평로 이(二)가 프라스틱 지붕 아래서
온종일 기다리게 두고,
나는 호올로 시를 쓴다.

아무도 모를 마음의 빈 들
허물어진 돌 가에 앉아,
썩은 모계 껍질에다 코라도 부비며
내가 시를 쓸 때,
나는 세계의 **집 잃은 아이**
나는 이 세상의 참된 아버지.

내가 시를 쓸 땐
멋진 너희들의 사랑엔
강원도풍(江原道風)의 어둔 눈이 나리고,
내 영혼의 벗들인 말들은
까아만 비로도* 방식에 누운
아프리카산(産) 최근의 보석처럼
눈을 뜬다.

㉠ 빛나는 눈을 뜬다.

- 김현승, 「시의 맛」 -

* 비로도: 옷감의 한 종류인 벨벳.

(나)

며칠 전 나는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에서 바다에 사는 해달의 행태를 보면서, 몸의 언어로서의 글쓰기에 대한 그럴듯한 은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에 사백 회가량이나 물질을 하는 어미 해달은, 잠수할 줄 모르는 아기 해달을 물 위에 발랑 뒤집어 놓혀 놓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잠수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사 분이라 한다. 글 쓰는 사람에게 어미 해달과 아기 해달은 한 몸이다. 그는 걸뚝뚝이 머리를 잠재워 두고 **몸속 깊은 곳을 들락거리며 씬 없이 연상의 물질을 해 대는 것이다.**

해달이 먹이로 좋아하는 것은 조개류이다. 해달은 해변에서 주워 온 돌을 자기 배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다 조개를 내리쳐 살을 꺼내 먹는데, 해달의 등뼈와 갈비뼈는 그 충격을 견뎌낼 만큼 견고하다. 재미있는 것은 해달이 조개의 빈 껍데기를 배 위에 놓고 접시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글 쓰는 사람에게 조

개껍데기는 언어가 아닐까. 언어는 글 쓰는 사람 자신의 몸 위에서 갈라지고 부서지며, 딱딱한 일상의 외피를 벗고 나서야 비로소 부드러운 속살을 드러낸다. 그리하여 속살을 걷어 낸 한 언어의 껍질은 다른 언어의 속살을 담는 받침이 되는 것이다.

해달은 바다 밑에 뿌리를 두고 수십 미터 옷자란 해초 다발에 몸을 감고 잔다. 그것은 밤새 높은 파도에 떠밀려 가거나, 해변이나 바위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몸의 언어로 하는 글쓰기도 그런 것이 아닐까. 누군가 글쓰기가 육조를 타고 대서양 건너는 일과 같다고 했지만, **언어라는 연약한 물풀에 몸을 감고 밤새 뒤척이며 날 밝기를 기다리는 것.** 내가 본 프로에서 어미 해달은 폭풍이 몰아치던 밤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물질도 할 줄 모르는 아기 해달만 남아 떨고 있었다. 글 쓰는 사람이여, 당신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가.

- 이성복, 「나는 왜 문학을 하는가」 -

31.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행위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상승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현실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는 문학 행위에 대한 작가 스스로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가)는 화자가 일상적인 행복을 포기하고 선택한 시 쓰기 과정을 보여 주고 있고, (나)는 동물의 행동에 빗대어 작가의 지난(至難)한 문학적 글쓰기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① (가)에서 ‘벚꽃’, ‘술’, ‘나의 사람’은 일상적인 행복에 해당하는 것이겠군.
- ② (가)에서 화자가 ‘멋진 약속을 깨뜨리고/시를 쓴다.’는 것에서 문학 행위에 대한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읽어 낼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집 잃은 아이’는 시를 쓰기 위해 방황했던 과거 삶에 대한 화자의 회한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④ (나)에서 ‘몸속 깊은 곳을 들락거리며 씬 없이 연상의 물질을 하는 것은 작가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겠군.
- ⑤ (나)에서 ‘언어라는 연약한 물풀에 몸을 감고 밤새 뒤척이’는 모습은 문학의 언어에 대한 작가의 고뇌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33. (가)의 ㉠을 (나)와 연결해서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해달이 ‘조개를 내리쳐’ ‘부드러운 속살’을 얻는 것과 같이, ㉠은 시인이 노력 끝에 예술적 가치를 얻게 됨을 의미한다.
- ②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애쓰는 어미 해달의 모습과 같이, ㉠은 독자를 위해 가져야 할 시인의 희생정신을 의미한다.
- ③ ‘육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일’과 같이, ㉠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려는 시인의 무모함을 의미한다.
- ④ ‘아기 해달을 물 위에 발랑 뒤집어 놓혀 놓’은 어미 해달처럼, ㉠은 시인에게 다른 작품을 모방하지 않으려는 도덕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⑤ ‘폭풍이 몰아치던 밤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간 어미 해달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은 시인이 문학의 언어를 선택할 때 시대정신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곳곳한 절개를 지닌 선비 자허가 밤에 독서를 하다가 잠이 든다. 꿈속에서 강 언덕을 거닐며 시를 읊던 자허는 복건을 쓴 사람을 만나는데, 그는 임금과 신하들이 자허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정자로 인도한다.

그들은 자허가 오는 것을 보고 일제히 마중을 나왔다. 자허는 그들과 인사를 나누기 전에 먼저 임금에게 나아가 문안을 여쭙고 되돌아와서 각자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다가 맨 끝에 앉았다. 자허의 바로 윗자리에는 복건을 쓴 이가 앉았고, 그 위로는 다섯 사람이 차례로 앉았다. 자허는 어떻게 된 까닭인지 알 수 없어서 몹시 불안하였다. 그때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일찍부터 경의 꽃다운 지조를 그리워하였소. 오늘 이 아름다운 밤에 만났으니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 마오.”

자허는 그제야 의심을 거두고 일어서서 은혜에 감사하였다. 그 후 자리가 정해지자 그들은 고급 국가의 흥망을 흥미진진하게 논하였다. 복건 쓴 이는 탄식하면서

“옛날 요, 순, 탕, 무*는 만고의 죄인입니다. 그들 때문에 후세에 여우처럼 아양 부려 임금의 자리를 뺏은 자가 선위*를 빙자하였고, 신하로서 임금을 치고서도 정의를 외쳤습니다. 천 년의 도도한 세월이 흘렀건만 누구도 그 폐해를 구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네 임금이야말로 도적의 시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였다.

그러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임금은 얼굴빛을 바로잡고, “아니오. 경은 이게 대체 무슨 말이오? 네 임금의 덕을 지니

고 네 임금의 시대를 만났다면 옳거니와, 네 임금의 덕이 없을 뿐더러 네 임금의 시대가 아니라면 아니 될지니, 네 임금이 무슨 허물이 있겠소? 다만 그들을 빙자하는 놈들이 도적이 아니겠소?”

하고 말했다. 그러자 복건 쓴 이는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며, “마음속에 불평이 쌓여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치게 분개했습니다.”

하며 사과했다.

임금은 또,

“그만두시오. 오늘은 귀한 손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 다른 것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소. 다만 달은 밝고 바람이 맑으니, 이렇게 아름다운 밤에 어찌하려오.”

하고 곧 금포를 벗어서 갓마을에 보내어 술을 사 오게 했다. 술이 몇 잔 돌아 임금은 그제야 잔을 잡고 흐느껴 울면서 여섯 사람을 돌아보았다.

“경들은 이제 각기 자기의 뜻을 말하여 남몰래 품은 원한을 풀어 봄이 어떠할꼬.”

했다. 여섯 사람은

“전하께옵서 먼저 노래를 부르시면 신들이 그 뒤를 이어 볼까 하옵니다.”

하고 대답했다. 임금은 수심에 겨워 옷깃을 여미고 슬픔을 이기지 못한 채 노래 한 가락을 불렀다.

강물은 울어 열 제 쉴 줄을 모르는구나
 기나긴 나의 시름 이 물에 비길까나
 살았을 때는 임금이건만 죽어서는 고혼뿐이거늘
새 임금은 거짓이라 나를 높여 무엇하리
 고국의 백성들은 국적이 변했구나
예닐곱 신하만이 죽음으로 나를 따르는구나
 오늘 저녁은 어인 밤인가 강루에 함께 올라
 차가운 물결 밝은 달이 수심을 자아낼 때
 슬픈 노래 한 가락에 천지가 아득하구나

노래가 끝나자 다섯 사람이 각기 절구를 읊었다. 첫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먼저 읊었다.

어린 임금 못 받들은 내 채주 얽음이라
 나라 잃고 임금 옥보이고 이 몸까지 버렸구나
 지금 와 천지를 둘러보니 부끄러울 뿐이로다
 당년에 일찍 스스로 도모하지 못했음을 후회하노라
 (중략)

읊기가 끝나자 만좌는 모두 흐느껴 울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기이한 사내** 하나가 뛰어드는데 그는 씩씩한 무인이었다. 키가 훨씬 크고 용맹이 뛰어났으며, 얼굴은 포갠 대추와 같고, 눈은 셋벌처럼 번쩍였다. 그는 옛날 문천상의 정의에다 진중자의 맑음을 겸하여 늙름한 위풍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심을 일으키게 했다. 그는 임금의 앞에 나아가 뵈 뒤에 다섯 사람을 돌아보며

“애달프다. **썩은 선비들아**, 그대들과 무슨 대사를 꾸렸단 말인가.”

하고 곧 칼을 뽑아 일어서서 춤을 추며 슬피 노래를 부르는데, 그 마음은 강개하고 그 소리는 큰 종을 울리는 듯싶었다. 그 노래는 다음과 같았다.

바람은 쓸쓸하여 잎 지고 물결 찰 제
칼 안고 긴 휘파람에 북두성은 기울었네
살아서는 충의하고 죽어서는 굳센 혼을
내 금량*이 어떻더뇨 강 속에 둥근 달이로다
함께 일을 도모한 것이 잘못이니 썩은 선비 책하지 마오

노래가 끝나기 전에 달이 어두컴컴해지고 시름겨운 구름이 끼더니,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몰아쳤다. 귀를 찢는 천둥소리가 울리니 모두가 홀연히 흩어졌다. 자허도 역시 놀라 깨어 본즉 곧 **한바탕의 꿈**이었다. 자허의 벗 매월거사*는 이 꿈 이야기 듣고 **통분한 어조**로 말했다.

“대체로 보아 옛날로부터 임금¹이 어둡고 신하가 혼란*하여 마침내 나라를 망친 자가 많았다. 그런데 이제 그 임금을 보건대 반드시 현명한 왕이며, 그 여섯 신하도 또한 모두 충의의 선비인데 어찌 이런 신하와 이런 임금으로서 폐망의 화를 입음이 이렇게 참혹할 수 있겠는가. 아아, 이것은 대세가 이렇게 만든 것일까. 그렇다면 이는 불가불 시세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며 또한 원인을 하늘에 돌리지 않을 수 없겠다. 하늘에 원인을 돌린다면, 저 착한 이에게 복을 주며 악한 놈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하늘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만일 하늘에 원인을 돌릴 수 없다면 곧 어둡고도 막연하여 이 이치를 상세히 알 수 없이 유유한 이 누리에 한갓 지사의 회포만을 돌을 뿐이구려.”

- 임제, 「원생몽유록」 -

- * 요, 순, 탕, 무: 고대 중국의 성군(聖君)들.
- * 선위: 군주가 살아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군주의 지위를 물려주는 일.
- * 금량: 마음속에 깊이 품은 생각.
- * 매월거사: 생육신 중 한 명인 김시습의 별호.
- * 혼란: 어리석고 못나서 사리에 어두움.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관점으로 인물의 성격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과거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전기적 요소를 활용해 인물의 신이한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대화와 삽입된 노래를 통해 인물들의 심회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우의적 소재를 활용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35.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금은 왕위를 잃은 후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있다.
- ② 자허는 신하들 사이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 ③ 기이한 사내는 노래를 통해 자신의 충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복건 쓴 이는 임금의 지적을 받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⑤ 첫째 자리에 앉은 사람은 임금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임제는 남효온이 지은 사육신의 전기인 「육신전(六臣傳)」의 주제를 수용하여 「원생몽유록」을 창작하였다. 이 작품에는 세조에게 폐위당한 단종과 절의를 지켜 그의 복위를 도모한 사육신이 등장하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당시 공론화하는 것을 금기로 여기던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고,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분강개를 드러내고 있다.

- ① ‘임금’은 단종을, ‘예닐곱 신하’는 단종에게 절의를 지킨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새 임금은 거짓’은 작가가 등장인물을 통해 세조에 대한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썩은 선비들’이라는 ‘기이한 사내’의 질책에는 절의를 지키지 않고 세조를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비분강개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한바탕의 꿈’을 통해 당시에 금기시되던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통분한 어조’로 매월거사가 한 말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한탄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37. 윗글의 ‘자허’가 ‘임금’에게 편지를 쓴다고 가정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은 삼가 전하께 글을 올리옵니다. ① 꿈속에서 소신이 전하를 알현했을 때 전하께서 고결한 선비로 대우해 주셔서 감격했습니다. 전하께서 선위에 대해 논하실 때 관심을 갖고 들었는데, ② 복건을 쓴 자와 달리 전하께서는 선위를 한 옛 임금들과 선위를 핑계로 대는 역적들을 아울러 비판하신 것 같았습니다. 황송하옵게도 전하께서 소신을 위해 비단 도포를 팔아 술을 사 오게 하실 때는 정말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술자리에서 ③ 자연물에 의탁하여 마음을 드러내신 전하의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의 노래까지 끝난 후 나타난 위풍당당한 무인의 검무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④ 전하께서는 곳은 날씨 속에서 뇌성과 함께 갑자기 종적을 감추셨고, 소신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워낙 꿈이 생생한지라 ⑤ 소신은 꿈에서 겪은 일을 의기가 넘치는 친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비록 꿈이었지만 전하를 뵈오니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전하,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라옵니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얕은 곳에 해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잠든 밧긔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일세
밤밤마다 꿈에 뵈니 꿈을 돌려 상시과저*
 학발자안* 못 뵈거든 안죽서신* 잣아짐에
 기다린들 기별 올까 오노라면 달이 넘네
 못 본 제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노친 소식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 알까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 뉘 헤울고
 문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따르고저 뜨는 ㉠ 구름 남천(南天)으로 닫는구나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저
 나는 듯 새나 되어 창가에 가 노닐고저
 내 마음 헤아리려 하니 노친 정사(情思) 일러 무삼
여의 잃은 용이오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의 낙엽같이 어드메 가 머무를고
 제택도 파산하고 친속(親屬)은 분찬*하니
 도로에 방황한들 할 곳이 전혀 업네
어느 때에 주무시며 무엇을 잡숫는고
 일점의리* 살피더니 어느 자손 대신할고
나 아니면 뉘 뵈시며 자모(慈母) 밧긔 날 뉘 꿩고
 남의 업슨 모자 정리(母子情理) 수유상리* 못하더니
 조물(造物)을 뉘이건가 이대도록 떼쳐 온고
 - 이광명, 「북찬가」 -

* 꿈을 돌려 상시과저: 꿈을 가져다 현실로 삼고 싶구나.
 * 학발자안: 머리가 하얗게 썬 자애로운 얼굴. 어머니를 가리킴.
 * 안죽서신: 기러기 발목에 매달아 보낸 편지.
 * 일반고사: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생각.
 * 분찬: 바빠 달아나 숨음.
 * 일점의리: 한 벌의 옷과 한 켤레의 신발.
 * 수유상리: 잠깐 동안 서로 헤어짐.

38.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물음의 방식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비유의 방법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 ③ 유사한 구조의 시구끼리 짝을 지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사실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 ⑤ 연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북찬가」는 역모 사건과 관련되어 귀양을 가게 된 작가의, 홀로 남겨진 노모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유배지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지만 갈 수 없기 때문에 절망과 한탄의 정서를 갖게 된다. 이런 점에서 「북찬가」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충심을 노래한 다른 유배 가사들과는 구별된다.

- ① ‘밤밤마다 꿈에 뵈니’에는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군.
- ②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 뉘 헤울고’에는 노모에게 소식을 전할 수 없는 화자의 절망감이 담겨 있군.
- ③ ‘여의 잃은 용’에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귀양 보낸 임금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표현되어 있군.
- ④ ‘어느 때에 주무시며 무엇을 잡숫는고’에는 홀로 남겨진 노모에 대한 화자의 걱정이 드러나 있군.
- ⑤ ‘나 아니면 뉘 뵈시며’에는 노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군.

40. 윗글의 ㉠과 <보기>의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 구름이 무심(無心)탄 말이 아마도 허랑(虛浪)하다
 중천(中天)에 떠 있어 임의로 다니면서
 구태야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뉘나니
 - 이준오의 시조 -

- ① ㉠은 화자의 염려가 투영된 소재이고, ㉡는 화자의 소망이 의탁된 소재이다.
- ② ㉠은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③ ㉠은 화자가 처한 불행한 현실을 드러내고, ㉡는 화자가 추구하는 세계를 드러낸다.
- ④ ㉠은 화자로 하여금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는 화자로 하여금 탈속적 세계를 떠올리게 한다.
- ⑤ ㉠은 화자에게 현실 극복 의지를 불려일으키고, ㉡는 화자에게 현실에 대한 체념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41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현세는 셋방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우연히 만난 옛 친구인 두갑이는 어떤 집의 주인이 셋방 사람들을 내보내려 하는데 그들이 나가려 하지 않는다면, 현세가 그 집을 구매하는 것처럼 연기를 해 준다면 그 대가로 방을 내어 줄 것을 약속한다. 고민 끝에 현세는 집을 구매하는 척하여 결국 사람들을 내쫓고, 구문*을 지불하기 위해 집주름* 영감을 만난다.

“선생님, 이러지 마시구 좀 더 생각해 주셔야죠.”
하는 것이었다.

“그만하든 되디 않습니까?”

[A] “선생님두 다 아시다시피 이번 사신 집이야 그저 은으셨죠. 어제두 요 뒤에 집 매매가 있었는데 매 칸에 꼭꼭 일만 오천 원씩에 팔렸죠. 그런 데 비기면 그저지 뭐니까. 거 다 선생님 복이시지만, 내가 별별 수단을 다 써서 그렇게 싸게 사셨다는 것두 생각하셔야죠. 그리구 전에두 잠깐 말씀드렸지만서두 일이 성사만 되게 허느라구 저편에서는 일 전 한 푼 못 받았습죠. 그뿐인가요, 전재민*으루 오신 선생님네 하루라두 속히 이사 오시두록 허느라구 셋방 사람들 방 내는 덴 얼마나 또 속을 썩었다구요. 선생님두 그날 같이 가셨었으니까 짐작이 가시겠지만 그동안 내가 하루에두 몇 번씩 그 노파 성화를 받았는지 모르죠. 증말 이번에 학질 뻔했습니다, 학질 뻔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나 아니면 절대루 셋방 사람들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 다 선생님네 하루라두 속히 이사 오시두록 허기 위해 헛 게 아닙니까. 그러니 선생님이 이런 거 다 생각해 주셔야 협죠.”

셋방 사람들 내보내는 데 힘들었다는 것은 집주름 영감의 말대로 그렇다 해도, 저편 집주인의 구문은 물론 셋방 사람들 방 얻어 내보내 준 샅까지 모두 두갑이의 말대로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어찌됐건 현세는 이 일을 어서 끝내고만 싶었다.

“우린 전재민이 아니웬까?”

“그런 말씀을..... 어디 전재민이구 전재민 아니구가 있나요. 선생님 곁은 이현테 비기면 우리가 전재민이죠. 수다한 식술에, 식구가 자그만치 열넷이랍니다. 버는 사람이라곤 이 늙은 것 혼자구 그나마 조금씩 보태든 아들 녀석은 턱 알아놓지를 았었수. 그런데다 엇그젠 또 며늘애가 몸꺼지 풀어 났으니, 그래 우리 성한 사람이야 어쨌건 았는 사람 죽술이나 허구 애어미 미역국이나 끓여 먹여야 허잖겠수? 선생님 그러시지 마시구 더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는 늙은 집주름의 얼굴은 온통 땀투성이가 되고 눈도 충혈이 돼 있었다.

현세는 문득 자기네도 미역 이파리나 사 놔야 하지 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현세는 이 늙은 집주름에게 이번 집 매매의 내막을 톡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현세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경황도 경황이려니와 우선 그럴 기운이 았다는 걸 느꼈다.

현세가 그냥 걷기 시작하니까 집주름 영감은 다급하게,

“아니 선생님, 다른 건 다 그만두구 보통 구문대루 일 푼만 친대두 천 원이면 십만 원에 대한 구문밖엔 더 안 되지 았수? 어디 그래서야 되나요.”

하고 수표를 도로 돌려주기라도 할 것 같은 기세를 보이는 것이었다.

여기서 현세는 두갑이가 말한 찰거머리라는 말과 잡아멜 적에는 딱 잡아떼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으나 그보다도 이제는 더 서서 말할 기운조차 았어 그냥 걷기만 했다. 이 현세의 태도가 늙은 집주름에게는 또 혹시 수표를 내준다면 그것을 그냥 받아 가지고 갈 것같이 보였던지 탄원하는 어조로,

“그럼 선생님 다시 잘 생각해서서 처분해 주십시오. 그럼 조심해 가시우.”

하면서 꾸뻑꾸뻑 절을 했다.

푼 구름이 걷힌 하늘 아래서 현세는 이제는 다리만 허청거릴 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아까보다 아주 흐리어졌다. 눈을 가느스름히 뜨면 좀 낮게 보이지만 그렇게 눈을 가느스름하게 하면 그러지 았아도 자꾸 들어만 가는 눈이 절로 찌뻑뻑하니 감기어지며 쓰린 눈물이 내배는 것이었다.

(중략)

“그런데 말야, 자네에게 미안한 말 하나 하게 뻔네.”

한다.

현세는 왜 그런지 가슴이 섬뜩함을 느꼈다.

“저, 다른 게 아니구 말야, 집권이 자기네가 방을 다 써야 될 일이 생겼다누만.”

현세는 종내 가슴이 철렁 무너았을밖에 았었다.

두갑이는 바지 뒤 포켓에서 십 원짜리 한 묶음을 꺼내 현세 앞에 놓으며,

“그래 미안하다구 하든서 이걸 보내데. 정말 안뻔네. 좋은 일 하려다 되레 자네한테 원망 듣게 뻔어.”

그리고는 살피듯이 현세를 한 번 바라다보고 나서,

[B] “글쎄 첨엔 단돈 오백 원을 내놓지 았겠어? 그래 내 고향을 질렀지. 그 사람이 돈이나 오백 원 바래구 그런 숭한 광대놀음 할 사람인 줄 았느냐구. 당신 눈에는 오백 원이 대단해 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아무리 전재민이라두 이런 돈 았이두 사는 사람이라구 해 뵈지. 그랬더니 오백 원을 더 내놓두만. 서울깍쟁이라더니 정말.....”

사뭇 분개해 하는 말투요 표정이었다.

현세는 또 이 두갑이의 분개해 하는 말투와 표정과와는 달리 가슴속 한가운데서 누구에게라 았이 악이 머리를 들고 일어남을 느꼈다. 그것은 뺨같이 독이 오른 대가리였다.

“하기야 요즘 아무리 돈 가치가 았대두 천 원이든 적잖은 돈이지. 그리구 말야, 자네 방 문젠 내 또 알아뵈세. 발 벗구 나서든 그까짓 방 한 칸쯤 문젠가. 내 꼭 책임지지. 아예 이번 집에 못 가게 된 거 서운하게 생각 말라구. 되레 잘되는 일인지두 몰라. 교통두 불편하구 더구나 요새 그 집권은 돈냥이나 버니까 뵈 부족할 것 았이 들여다 먹는데 말야, 한집에서 그걸 보구 어떻게 견디나. 내 자네 있기 존 방 하나 구해 주지.”

현세의 악은 이제야 분명히 누구에게보다도 먼저 이 두갑이에게 향해짐을 느꼈다. 그저 이놈의 우뚝한 코를 평안도식으로 한 대 지끈! 그러나 그것은 벌써 이미 다 죽어 가는 실뺨의 악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두갑이가 윗몸을 현세 앞으로 내밀더니 돈 묶음을 들어 엄지손가락으로 한 편 끝을 몰아 쥐었다가 펠릭펠릭 놓아 주면서,
“요새 십 원짜리 2호에 가짜 돈이 많다데. 그래서 여긴 2호 짜린 한 장두 받아 오지 았았지.”

그러는 두갑이의 두꺼비 입에서는 또 불고기와 소주와 마늘을 먹은 뒤에 나는 냄새가 풍기어 왔다.

현세는 종내 이 두갑이의 입김에 못 견디어 도망이나 하듯이 그곳을 나오고 말았다. 저도 모르는 새 돈 묶음만은 집어 쥔 채. 두갑이의, 자기는 이 다방에만 오면 만날 수 있으니 꼭 만나자는 말을 먼 메아리처럼 등 뒤로 들으면서.

- 황순원, 「두꺼비」 -

* 구문: 흥정을 붙여 주고 그 보수로 받는 돈.

* 집주름: 집을 사고팔거나 빌리는 흥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전재민: 전쟁으로 재난을 입은 사람.

4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여러 인물들의 내적 독백을 나열하여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 ③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⑤ 현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이 처한 시대적 현실을 총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4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 [B]에는 모두 현세를 위해 행한 노력이 강조되어 있다.
- ② [A], [B]에는 모두 자신과 현세가 처한 부정적 상황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다.
- ③ [A]와 달리 [B]에는 현세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A]와 달리 [B]에는 현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
- ⑤ [B]와 달리 [A]에는 현세의 상황에 대한 호기심이 표현되어 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에서 현세는 일제 강점기에 만주 일대를 떠돌다 해방 이후 큰 기대를 안고 고국으로 돌아온 전재민이다. 해방 후 혼란으로 인해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전재민들은 동포들에게조차 이해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타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궁핍하고도 고단한 삶을 이어가야 했다. 작품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덕보다는 자신의 생존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혼란한 현실에서 공동체 의식이 흔들리고 있음을 그리고 있다.

- ① 집주름 영감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바로 세우려 했던 현세의 고뇌에 찬 '눈물'을 통해 도덕이 무너진 혼란한 현실을 엿볼 수 있다.
- ② 자신의 '악'이 '다 죽어 가는 실뱀의 악'일 뿐임을 깨닫는 현세에게서 당대 현실 속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전재민의 처지를 엿볼 수 있다.
- ③ 두갑이에게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돈 묶음만은 집어 권채' 자리를 떠나는 현세에게서 전재민의 궁핍한 처지를 엿볼 수 있다.
- ④ '우린 전재민이 아니웬까?'라는 현세의 말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동포들에게 이해를 구하려는 전재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⑤ 자신의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어려운 처지의 '셋방 사람들'을 내쫓는 역할을 한 현세에게서 도덕보다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던 당대 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우리 설화 속에서 두꺼비는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보다 강한 대상과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동물로 자주 등장한다. 또한 우리 전래 동요에서는 두꺼비에게 집을 달라고 비는 등 두꺼비를 기원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두꺼비 이미지를 변형하여 '두갑이'라는 인물로 설정하고 있다.

- ① 설화의 두꺼비가 강자 앞에서 나약했던 것처럼, 윗글에서도 두갑이를 집주인 앞에서 비굴하게 구는 것으로 그려냈군.
- ② 설화에서 두꺼비가 은혜를 갚는다는 내용과 달리, 윗글에서는 현세가 두갑이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내용으로 구성했군.
- ③ 설화와 전래 동요에 두꺼비가 긍정적으로 묘사된 것처럼, 윗글에서도 독자들이 두갑이에게 희망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형상화했군.
- ④ 설화에서 두꺼비가 정의로운 존재로 여겨진 것과는 달리, 윗글에서 현세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두갑이가 이용했을 뿐임을 깨닫는 것으로 설정했군.
- ⑤ 전래 동요에서 두꺼비에게 집을 달라고 기원한 것처럼, 윗글에서도 현세는 두갑이가 방을 얻어 주리라는 기대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것으로 구현했군.

45. 윗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집주름 영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현세는 기진맥진(氣盡脈盡)해 있군.
- ② 현세는 두갑이의 말을 듣고 그에게 동병상련(同病相憐)을 느끼고 있군.
- ③ 집주름 영감은 현세에게 돈을 더 받기 위해 애걸복걸(哀乞伏乞)하고 있군.
- ④ 집주름 영감의 말에 나타난 집주름 영감의 집안 상황은 가히 설상가상(雪上加霜)이군.
- ⑤ 두갑이는 현세에게 자신이 나중에 방을 얻어 주겠다며 호언장담(豪言壯談)하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